

1953년 8.15 연병식에서 연단에 오르신: 최종학 대장, 리영호 해군 중장
중국지원군 사령관 팽덕희 장군, 한일무 항공 중장.

1.



최종학 대장

최종학 선생은 1908년 3월 14일에 다반
군 재피거우촌락에서, 빈농민의 가정 장남으로 태
여났다. 이 다반군은 원동변강 최고도 해변강에
서 품 려어진, 씨호테아린 산맥 산기슭, 무뿌리참
림 중심부에 위치하였다. 지리상으로 볼때에 두대
산골이라곤 인정할수없으나, 조선 시말혁명후 원동
에 쓰베는 주권 설립 후쟁시기에 있어서도 어극중
대한 역할을 하였다. 어극에 벨라치산 대북대들과 크시
아 대 혁명군들이 자기 역량들을 집결하여 가지고
제정 러시아 백파군과 일제 침략군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전체 원동 변강을 해방할수없었던것이다.
1920년 즉 최선생이 소학을 졸업하는 해에 최
선생의 부모들은 재피거우촌을 떠나서 한인들이
대대적으로 집중하여 살고있던 북한 국경지
대 원연속영에서 일하 떠러지리 아니한곳으로
쓰베는주역 시지리촌으로 어극하여 왔다.

1

시지미촌 이사하여 모후 최선생의 부모들은 계속 농사에 종사
 하고 최선생은 초중에 입학하여 1923년에 초중을 졸업하였다.
 시지미 촌에는 고중이 없고 고중은 전 백사예촌 구역 내에
 다만 한글 즉 백사예촌 구역 행정 중앙 도시인 크라쓰기노
 에만 있었기 때문에 최선생은 1923년 봄에 그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원동변강에는 한글고중
 이란 다만 공곶, 즉 백사예촌 구역 중앙 도시 크라쓰기노,
 원동에서 레일론 항구 도시 블라지 보스도크, 및 하바롭
 스크 등 세 곳이고, 원동에 단하나 밖에 없는 한글 사범
 전문학교는 노왕림에 있었다 (현재 어른시 명칭은 무슈리
 스크 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아직 한글 사범은 없었기 때
 문에, 공부를 계속하려는 목적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다
 러시아의 중앙지대인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현재 상해제
 르부그, 그렇게 아니면 키예프 (우크라이나) 사에 가곤 하였
 다. 이 시기에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
 에서 한생한 최선생은 대학에 합격 될수 없는 고중생이
 은 소유하였지만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유학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부모들이 제신 시지미 촌에 돌아와 부모들의
 농사 일에도 방조하여, 농촌 공회 사업에 큰 공헌을 하
 면서 조직진행하였다. 본래 언변도 있고 청년군중들중에서
 사업조직 집행 부장라 워신트 방불하여 1928년 봄에도 큰
 공산청년회 책임적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1929년 까지
 일하시었으며, 최선생의 대중조직 능력 및 상부 지령의
 집행 능력과 그의 기동성으로 본아 앞 권람있는 당 간부
 될수 있음을 판명한 백사예촌 군당 위원회는 최선생은
 원동 변강의 부조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공부하러 파
 견하였다. 1932년에 공산대학 공청학부를 졸업한 후

로 뜻을 접하였다. 1928년 드디어 조선공산당은 농촌정리
 단합화, 협동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나 그 정책은 천인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주 미약하게 진행되었지만, 어쨌
 씬은 농지 불수권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부분적 지방에
 서는 반대파들이 협동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당
 단체 대^포사들을 살해하면서 협동화 정책에 반대
 한 역행을 풀려하였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
 하여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협동화 정책을
 더 강하게, 빠르고 속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 결정을
 채택하고, 그에 근거하여 세 군데에 쓰리게 임명소가를
 조직하였으리라, 그 임명소들에 정치부를 조직하였었다.
 이 정치부들을 지르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3200여
 명의 준비된 공산당원들을 그 정치부의 지도자들로 임
 하여 내어 보내었다. 바로 이 무렵에 공산대학을 졸업
 한 최선생은 위로실로 주한 가이 구역에 새로 조직
 된 기계 임명소 정치부의 공산청년회비서로 임명되어
 일하게 되었다. 그 후 최선생은 1934년 북어 시작하
 여 한가이 구역당 위원회 책임 지도원으로, 또 얼마
 후에는, 1936년 - 1937년 사이에는 군 당 제 3비서
 로 원점으로 북어 한인들의 강제이주 당시까지
 일하시었다. 강제이주 당시 최선생은 부모들과 함께
 호례능주 구루렌구역 우르백 공화국에 도착하였다. 새로
 실려온 도착지는 집이 몇개 보이지 않는, 아주 거스런 갈
 밭만 보이는 스산한 농촌 지대였다. 최선생은 자기가
 장차 사라갈^길도 불^길른이지만, 같이 실려온 조선동포들의

4

을 명을 위하여서도 속수무책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군당위원회에 찾아갔다. 군당위원회는 아. 참 잘 찾아 왔다고
칭찬하고, 금일 즉시부터 군당 책임지도원으로 이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각 농촌별로 분배 이동시키고, 비어있는 각종
목화 전조실, 허칸, 학교, 등을 수리하여 월동준비를 하게하는
한편, 원주민들의 집이 두칸이면 한칸씩 내어 우선 어린아이
들과 늙은 노인들이 있는 집들을 배치하고, 그 외에도 모라
라는 젊은 세대들은 당꼴을 파고 반호클락들을 짚어
월동 준비를 하였다. 지방 당 단체는 최선생을 만난 것
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1938년 정초부터 최선생
을 구름엔 구역당제2 비서로 임명하고, 새해 농산
준비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던바, 본래 원릉에서
당공청 조직사업에 능숙한 최선생은 각 농촌별로
협동조합들을 조직하게 하고 그에 능숙한 활동가들
을 선별하여 위원장들로 배치하는 한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군당을 통하여 새해에 심어야 할 각
농산물 씨앗, 농산기계, 운수리재 등을 중앙정부
에 요청하여 신속히 해결을 받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새 땅에 강제이주당하여온 한 인들은 호레늬주 구름엔
구역까지 도착하여서도, 또 도착하기전 도중에서
도 늙은 어린아이들과 늙은이들이 많이 죽었다 1938
년 봄에 비리 화풍은 시작되었으니 특별한 가족들은
전답에 씨앗을 남지 못하고 병든 아이들과, 복호를
을 시종하고 있는 형편에서 신음하다가 전 가족이
끝장 볼짐로 되었다.

그러나 생의 법이란 아주 중요하여 불타종은 제대로 한집에 서는 가문에 가서 아주 훌륭한 수확을 얻어 시작 하였다 황후지 갈밭에 최음파종한 비농작들은 60-80센타의 수확을 (160석까지) 주었으며 그중에서 "기간스" 와 "제3 인허나치오날" 협동조합들은 기적적인 수확을 얻어 전연맹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특별히 강령이 주민들은 국가질서에 의하여 3년간 국가공물수내에서 해방되어 막대한 수확을 얻어 잘 살게 되었으며, 38년로부터 국가의 대부분으로 살림집들로 대대적으로 시작하여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1938년, 1939년, 1940년, 3년동안 수다한 고려인들의 협동조합들은 자기 경리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취세하게 되었다. 이 어주민들이 생활질서를 확립하고 협동조합을 견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서 최선생의 역할은 아주 막대하였다. 최선생이 조직한 사업수안과 조직능력으로 보아서 벌써 오래전부터 근당 제1에서 자리에 올라설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제1에서 자리에는 선할 수 없었던 것은 언제 - 즉 1940년 초에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의 파견을 받아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선생은 1940-1941년, 2년 동안 외국에 파견하는 경찰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도중 모스크바 소련 최고사령부 총정칙국에서 봉환하여 당시 레닌그라드, 2년 2배 반-배가 큰 부르크로 공부하러 보내었다.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많은 한인 군관들이 군복을 얻은채 특별주에서 한인들 공복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최후에 알고보니, 소련 정치총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벌써 이때에 조선반도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하면 평양에서 한인어로 "조선 ~~신문~~ "신문을 발간할것을 계획 잡고 레닌그라드에서 그 간부들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이 특별조에서 공부하고 있는 노좌강 이하일 (최후 북한에서는 강노좌로

- 불렛음) 초선 왈렌진, 박 왈렌진, 리 불릿, 최아나 돌리 (인민군대 조직 창시부하 동족상잔이 시작되는 날까지 인민군 후방총국장 역을 지내었음) 시인 조기천 등 동지들과 만나게 되어 같이 공부하였으리. 최후 북한에서 장기간 같이 사업하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한 최선생의 일행은 계획대로 소련군 총국유르 사노부 동지를 총지로서 겸 주필로 모시고 "소베트 신문"란 신문을 한국어로 1945년 10월 중순부터 발간하며 전북 한에 무효로 배포하며, 발송하였다. 8월에 해방된 북한이 5-6개월 지나 1946년 2월이 되자 소련으로 부터 많은 기술자, 지식인들이 북한에 파견되어 (폴란드 극립공화대 학 고성부 선생이 딸 돌한 자로에 의하면 약 438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소베트 신문"사의 사업은 아주 쉽게 되었다.
- 조선속담에 댕들은 석우쟁이 만들어야 한다고, 신문은 신문쟁이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소련군 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소베트 신문사" 일군들보다, 일생 소련에서 신문만드는 일에 능숙한 많은 언체티들이 신문사 일을 많이 쉽게 하였으며, 그외, 지방 기존 신문들에 많은 지도적 방조를 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직접 지도자 - 다시 말하면 주필을 임하였다.

소금 25군단 정치부와 민권사령부는 이 신문사에서 조동 7
식할수 있는 많은 준비된 간부들을 긴요한 다른 사업계획에 부
겨 놓을수있으므로 사업이 쉽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해방된 양
은 간부들은 주로 출판물 검열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25군단
정치부는 북한에서 출판되는 모든 신문, 잡지, 책 등, 라디오 테이
프 프로그램 등이 전부가 출판물 검열국을 통해서 실출을 할수
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 문화선전 계획에 자본주의 이데올
로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대책이었다. 최선생의 일행 중에는
조선말을 너무나 잘 할수있도록 준비된 러시아 언도 2명이 하
있었다 (소모브와 그리그리예브) 이들도 조선말을 러시아 말
번역하라면 월화 명수였지만, 러시아 원문을 갖고 조선신
문 기사를 쓰라면 아마 숙련된 제 조선사람이 쓰는 기사가 어
느면으로 보던지 낯은 것은 사실이다. 때 문에 이 사람들
도 전부가 출판물 검열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때에 하
를 최선생은 조선인일군대 정치간부로 조동되어 자기 생애
맞이 막 날까지 있는 법은 다하여 언변에게 충실하게 복속
하였다. 1946년 2월에 "소베트신문사"에서 조동되어 새
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2사 정치부장 겸 부사단장으로
1948년까지 거기다가 다음 다시 조동되어 조선인민군
제1사 정치부장 겸 부사단장으로 지내다가 동족 상잔이
시작 되기 직 직전에 전선 정치부장, 1950년 12월부터
전선의 동북전선과 서북전선으로 불려와 최선생은 동북
전선 군사위원, (항시 서북전선 군사위원으로는 작은김일

이 임명되었다. 최선생은 동족상잔의 시작되던 첫날부터 총 8, 정치국 국장으로 조동된 1953년 2월까지, 즉 동족상잔의 3년 동안은 내내 전선에서, 야전 조건하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정치사상의 순결성, 당과 정부에 대한 충실성, 나아가서는 전세 인민에 대한 현실성의 결심으로 교양 함양에 자기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생도 장차 북한 노동당이 변태하여 김일성 독재당으로 자기 북자당으로 변화하고, 세습제도로 전향하면서 김일성에게 같은 충성을 다한 자기로 한 자리에서 철직, 제대 식혀 농촌에 유병사리 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총정치국 국장으로 계시시 최종학
조선인민군 상장.

1951년 3월 북해 전지권으로 넘어간 전선 전후 경계선은 고정 불변으로 1953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전선에 동원된 사병들은 모두다 장기간 전쟁에 열풍이 닳으며, 가정산림사리에 고적물 느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인민군대 내 당정치 교양사업은 배가로 바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만일 사상에 투철은 관관들은 음주, 후전을 일삼았고 사병들은^{9.}
북은 처사가 그리도 도둑사건의 빈번하였던데, 주변 논락에서
의 강간 사건의 종종 일어났다. 군연이란 항상 전후대
체를 보전하면서 전후계선의 변동이 동반되어야 전후구
들이 설립되는 법인데, 이것은 매일 같이 한곳에 압박하
고 있다 보니 한곳에 살고있는 동네 사람이나 군연어나 할 것
없이 전후대 한눈 등거언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환경
에서의 장병들의 사상교육사업, 전후대체를 보전하기 위한 사
업은 대단히 힘들었다. 그러나 혁신행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잘 조직한 결과 대성리를 건국했으며, 1953년 5월에는 자
기가 보편사업을 기철후 소장에게 인계하고, 총정치국장
으로 제시된 이재욱 중장이 평안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다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영전되어 있다. 티구
나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환경 외에 벌써 3년
새글로 계속되는 정전단판 회의도 장병들의 사상동태
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끝까지 전쟁
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전후를 버리고 제
각기 집에 돌아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에 있
었다. 이런 환경에서 인민군 총정치국 사업은 비할바없
이 힘들었다. 총정치국은 전제 장병들의 사상동태에 대
하여 책임이면서 작기가 지르하는 중대내 당, 인민단체
와 매국 인차식 진행되는 정치상황을 통하여 전제 병

사 장령들의 정신은 당중앙이 요구하는 수준에 제고되어야 하였다,
 벌써 수년간 각 계단을 밟아 올라오면서 원만한 정치사업을 지도
 한 최공화위 상장에게는 별로 두터운 것이 없었다. 사령들의 만일
 무사 사상과 적극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최장군은 총정칙내에
 고령 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월 각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내려가 사상교양사업을 검열하여 계단별을 편제
 에서 총화 점검, 벌써 만일사상에 부족한 기관들은 고득석에게
 집단군이나 전선사령관과의 협의에서 제대철칙까지 식별했다.
 그와 병행하여 각 사단 집단군 등에서 군대내 예술사업장에
 힘입어 협주단들을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순회적 공연을 강화
 하에서 군대내 숨어있는 장기를 숙출하여 적용하면서 계속발
 전식히도 록하였다 이와함께 전인민군대내에서 아주기
 들이 으뜸가는 예술인들을 중앙예술 협주단을 조직하여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소련 정치총국의 지지를 받은후 각
 형제국들인 체코, 헝가리, 독일, 폴란드, 몽고, 중국, 월남
 등 나라들에 신형서-"사실적 사회주의 예술교화"이란
 이름으로 "자기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와 목
 숨으로 그를 사수하는 인민군 예술단"이라고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명목하에 특한의 우수한 예술인재들을 세
 계에 자랑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일군들중
 에서 일괄하여 사상이 건전한 인재들을 포함, 장려
 하는 의미에서 각 형제국들에서 진행되는 당, 인민
 선진 일군들과 여성대회들에도 인민군 대표들은 배반적이

속출하여 파견하고 또 그들의 귀환 보고는 각구분대별로
 청취하고 호환하게 하였다.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은 최종학
 상장이 임명되자 비교적 잘되어 감응으로 최종학상
 장은 대장으로 승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임시적이
 었다. 사상검출사업으로 인하여 북한이 건전한 노동당원
 들이 수만명이 처단, 검거, 유형사리로 망하기 시작하자

1955년 경초북의 인민군대내에서도 사상검출사업을
 시작하라 김일성은 지시하고, 인민군대내 사상검출사업은
 북한에서도 반노사상거둬인 김창만에게 위임하였다 김창만
 은 이것을 허망하고 김일성에게 자원적으로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김창만의 충직을 보고 그대로 승락하였다.

김창만이는 인민군대내 사상검출 사업을 먼저 반연안파
 방향으로 돌리려하였으나 반연안파 운동은 벌써 김일성 자신
 의 지도하에 1954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창
 만이는 어항항에서 조속정화되려하였으나, 김일성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손을 대수없이, 반노방향에 주력을 돌리면서

최종학 대장에 대한 재료를 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
 였다. 우선 간부 배치 경험부하 시작하고, 소련 정치일꾼, 즉
 소련 출신 정치 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하여
 검열 검출사업은 시작하였다. 동북전선 군사위원 - 김철무,
 서북전선 군사위원 김일(장은김일), 1군단 천을, 2군단
 김창현, 정치군관부하, 항공사령부, 총정치국 등을 병합

뒤번지였다. 김창만이는 본래 연안파로서 김일성에게
 신봉있게 등용된 것은 단 하나이였다. 그러나 김창만은 그
 이상 더 높이 등용되려하였으나 12번 소련 출신 간부들이 그
 의 야망에 방해를 주었다. 중앙당 선전부장으 기뻐하였
 을시 박창욱이 길을 막았으며, 중앙당 부위원장에 들어가야 할
 때 허가어가 그러하였으며, 총정리국장에는 최종학이 역
 시 길을 막았다. 그 외에 최종학에게 ^{한하여서는} 개인적 야심이 있
 었던바 그것은 김창만의 복인이, 옛날 즉 1945년, 즉
 소련군이 금강 평양에 입성하였을시, 조선반도 해방자
 최종학 소련군 대위를 잘고지내었다는 것이다. 잘알고
 지내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되려만 반소거득 김창
 만이는 이로 인하여 신경을 많이 썼다. 때문에 여러 친구
 들은 모르고 있던 문제를 더 광범히 알게 되었으며, 그
 문제가 사실상 몇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은 다만 "소
 비트신보사" 사업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결론 정었다.
 최대장은, 1956년 1957년에 들어서면서 인민군대
 내 사상검토 사업이 강하게 진행되자, 또 사상검토
 진행 목적의 반소목적이며, 반소련 출신 간부들이었고,
 하였기 때문에 김창만 반소 집단의 조직적 공격을
 받기 어렵웠다. 이 점을 보고 재금에는 최고 피고자의
 이름은 소련 출신 간부들이였다. 이때 김일성은 어디서나

조선출신간부들은 권부다 제거하려는 계획에, 인민군대 단계가 밟아막 단계였다. 김일성이든 어떻게 외계에서 들어온 간부들은 문화적으로 - 남한, 중국 연안, 소련 맞기 다 다른 나라들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온 오랜 노공산당원들을 용당형상하고, 북한에 유수한 김일성 부자가 지도하는 민족적 독재주의 봉건적 세습

제도에 가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만 반소 집단 검열원들은 인민군대 조직이후 10년 동안에 잊은일, 그중에서 3년 전쟁기간, 전공, 후회, 또 전공 후회, 한바디로 말하여 그동안에 잊은 모든 불결한일, 모든 위법적이며, 조선인민의 품속에 거슬리는 일까지도

권부다 인민군대에 당정치 사상교양사업의 목적 지향성없이 진행될 원인으로 각인하고 김일성에게 최종학 대장을 현직에서 출직 제대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은 바로 그것으로 기각되었을바, 어프러진 비비결이나 할라고

사상검토 진행, 총결적 검열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학 대장은 1957년 중순에 출직 제대하여 가정주부로 돌리었다.

최종학 대장을 출직 제대하던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려한다. 최종학 선생은 현직에서 잘못거나 개혁강급을당하고 잊으면서 1958년 5월 27일에 소련으로 귀환할 준비를 다하고 잊은 전방총위원회 위원장 남봉식 선생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남흥식 선생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녁 식사 전에 최선생의 사택에 찾아갔다. 서로 연사가 있던 다음 남흥식 선생은 최선생에게 물기를 - 반당 종파원자가 이렇게 선생님 사택을 찾아봐도 괜리 애통하니가? - 하곤 물으니, 최종학 선생은 대답하

- 기를 - 나야 인제 다 죽은 옥졸인데, 무얼 겁나는것없소 - 하였다. 그대에 남선생은 - 최선생님이 그렇게 생각 해서야 되겠소?, 그러드 다시 노생 할 길이 있겠지 - 하여 최선생을 만유하였다. 이렇게 남선생은 최선생을 위안 하여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최선생은 사상 검출 사업이진 정형을 알하다가 맞이락 총결군사 위원회가 진행되던 정
- 형을 간단히 알라시겠디고 하시었다. 최고사령부 군사위원 회는 최용권 민족보위상이 위원장으로 진행하였던바 그
- 예는 김일성에도 참가하였다. 사상 검출 진행정형 결과 기본 보고는 김창만이 장시간하면서 총정치국 사업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양의와 독성을 다하여 보고서가 아니라 불결한 오물통 공담이로 야해하게 공격하였던 기본 보고가 끝난다음 위원장은 총정치국장 최종학 대장에게 언권을 준다고 선포하였다. 최대장은 몇일동안 준비한 보고물을 들은 연단에 가까이 가서 보위상 최용권어는 자기 부관 대위에게 명령하기를 - 저놈의 보고를 들을것도 없으니 전장을 잡아 떼라 - 고 꾸짖었다 그소리가

떨어지자 근관 대위는 300여명 근관 장령들이 흉인관청
 속에 견장을 잡아 떼었다. 그 다음 최용권이는 다시 -
 그놈의 무팍의를 뺏기라고 - 또 소리쳤다. 소리가 떨어지자
 부관은 달려들어 또 상의 뺏았다. 이렇게 최대장은 흉식

간에 대장으로 복혀 털을 뽑아 놓은 앞 닳모양으로 관공
 앞에 서서 인간의 최하 위치와 학대를 받았으며 멸시
 를 당하였다고 하시었다. 최대장은 한생 이후 50여년
 을 살아 오는중 20여년간 여러가지 직위에서 일하시었
 으니, 멸시와 학대를 받은 조선의 한인강제 어루로 당하였

지만, 이렇게 북한도동당이 계획하고 그가 실시한 정책하
 에서 직접 그 정책의 과수인 김일성의 목격하에서 받은

● 최대와 멸시는 그 무엇에다 비할바 없는 멸시며, 인간의 최
 하바닥 멸시, 다만 김일성과 같은 "어버이" 만이 꾸려 낼
 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속내의만 없고 재 판장에 끌려온

적인처럼 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서있고, 앉아
 있는 최대장은 그 회의 즉석에서 최용권의 "현직에

● 서 출직하며, 인민군대에서 제대한다는 결론을 듣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앓기 시작하였다. 이 막대한

계획을 조작 설계한 김형환은 큰 승리나한 대장처럼 또

다른, 또다른 조선출신 간부들을 꺾기위한 흉계를 계속

꾸리고 당중앙에 계속 백여 있으면서 김일성에게 아첨
 하였다. 이 아첨쟁이는 최대장에 대한 복수를 이에서

개관인데, 어디로 가면 살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중 하루는 화물자동차가 평양으로 식량하역 간다고하
는데 문수로릉자로 가라는것이였다. 본래 만수창환 아파나씨
는 화물차 운전사 하곤 아귀신한 사이였다. 평양시에 도착하

자 아파나씨는 운전사 처러 부탁하기를 소련대사관 겸으로

- 지나가라고 하였다. 아파나씨의 목적을 모르는 운전사는 바로
소련대사관 겸으로 지나가게 되였다. 이때에 아파나씨는
눈시없이 자동차 운전대에서 뛰여내려 대사관 출입문어
구에 서고있는 보초병을 밀고 그 안으로 뛰여 들어가면서 어제
곳 나온다고 하였다. 대사관 안에 들어간 아파나씨는 명사관

사무실로 찾아가, 아무런 노트도 없이 영사 앞에 다가서면

- 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였다. 그때에 영사는 눈이 뜨글하며
지면서, 그 명문을 물었다. 그때에야 아파나씨는, 어제 살
때를 만났다고 자기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자기를 소련
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지 아니면, 자기는 어제 이물하
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영사는 대사관

높이하고 아파나씨를 뒤시방에 갖다가 옮겨 놓았다.

- 그 몇은후 아파나씨는 무사히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자기
친척들로 만나고 일출하면서 야간을 리용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들러하였다.

이 어후 얼마지나가 최종학 선생의 건강이 좀 쾌하
게 되자 당중앙은 최선생을 함경북도 길주 파르프
공장으로 지배인 직무에 파견하였다. 김일성은 최선

생을 생각 하려서 보다, 최선생을 중앙에서 북히 먼 구한
지역에 파견하여 거기서 정배사리하다 죽으라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길죽에 내려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당분간이었다. 아파나씨가 도주

하여 노련에 갖다는 노물은 내지 않았으나 당 중앙은

● 잘 알고 있었다. (원래에는 아들이 부친의 일 때문에 강제

수용노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버지

가 아들의 "죄" 때문에 길죽 팔포공장 지배인 직무에서도

별직 당하여 1960 년도 북히 보흥북기북 출납부장 직무에서

일하시다가 1961년에 53세의 생생한 나이로 길죽

에서 별세하였다.

● 최아파나씨는 현재 조국 민주평화통일 구국전선 사무총

장으로 거세게 활약하면서 모스크바에서 거주하고 있다.

최 아파나씨는 조국통일의 그 날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

하여, 하루속히 굶주리고 무법천지에서 헤매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해방하여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

의 인민으로 또다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것을 위하여서는 구국전선 중앙이 지시하는 대로 북한의 경

제를 사실 그대로 백일하에 폭로하여, 북한에 구강하는 사회

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무법봉건적 세습제

도이며, 자기 친척들과 가문의 한계없는 부귀와 명화,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공산주의 변태주의라는 것을 전세계 인민

19.

인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재 아파나시는 포린
"에스베스지야" 신문사를 통하여 구국전선 신문으로 큰
번역하여 일사불기에 한장씩 책으로 출판하여 구노련
각 공화국들에 보내어주고 있다. 이에 양바침하여 현재
남한 통일문제 연구소에서 출판하여 노련 각 지역들에
배포하여주는 "오늘의 북조선" 책과 테이 테이프 등을
제대로 받아 구국전선 성원들에게, 또는 전체한
인들에게 잘 전달 되게 하는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지르 계획하여 크대한 성과를 얻고 있다.

1997. 11. 16 일. 모스크바에서.